

낙동강, 오지와 평야를 두루 적시는 생명력

글 김동정 르포작가

안동호

낙동강 1,300리. 이렇게 써 놓고 보니 그 거리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에서 발원해 경북 내륙 지방(봉화, 안동)을 거쳐 영남땅(밀양, 부산)을 관통, 남해로 흘러가는 총 연장 521.5km의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다. 그런 만큼 강에 얽힌 사연도 가지가지이고 그 모습 또한 유장하기 이를 데 없다. 한민족의 역사를 오롯이 담은 강인 것이다.

황지에서 하구언까지, 거침없는 물줄기

함백산 깊숙이 자리한 태백시 황지동의 황지(黃池). 낙동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상지·중지·하지, 3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진 황지는 하루 5천 톤 가량의 용출수를 뿜어내며 낙동강으로 퍼져간다. 그 초입에 있는 구문소(求門沼)는 거대한 석회암 동굴로 '구멍 뚫린 암반을 끼고 있는 연못'이란 뜻이다. 단군 할아버지가 뚫은 구멍이라는등 백룡이 청룡을 기습할 때 생긴 구멍이라는등 온갖 신비한 전설이 재미있다. 황지를 벗어난 물은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나면서 30여 킬로미터를 내리 달려 경북 봉화땅 승부마을을 지나

소천면 현동천에 이른다. 이어 강물은 산세 그윽한 청량산 자락을 휘감고 돌아 양반의 고장 안동땅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물길을 가로막는 안동댐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큰 물줄기는 이 안동호에서 거미줄처럼 뻗어간다.

안동시 위쪽의 반변천과 만난 물줄기는 30여 킬로미터를 내달려 S자형으로 굽이돌며 하회마을에 다다르고, 다시 흐르고 흘러 예천 봉화땅을 꿰뚫고 나오는 내성천과 금천을 품에 안고 상주의 젓줄인 병성천에 이른다. 반변천은 영양군 일월면 일월산에서 솟아나 남쪽으로 흘러 일월면 도계동에 이른다. 낙동강 제1지



임하댐



안동댐 진입로 은행나무

류로 길이가 110km에 달하는 내성천은 맑은 수질을 자랑한다. 특히, 회룡포 구간은 내성천이 간직한 매력 덩어리로 '의성포'로도 불린다.

병성천은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 국수봉 남쪽계곡에서 발원, 낙동강 본류 합류 지점인 병성동과 사벌면 삼덕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34km의 긴 하천이다. 깨끗한 증상류와는 달리 병성천 줄기는 물이 표나게 탁한데, 하천 주변에서 흘러드는 각종 폐수가 그 원인이다. 상주를 벗어난 강줄기는 의성과 군위를 거쳐 공업도시 구미에서도 산업폐수로 힘겨워한다. 구미를 떠난 낙동강은 여러 지류들(금호강, 남강, 덕천강, 임천강, 경호강 등)과 합쳐 하류 쪽 대구를 지나 김해평야를 적신 뒤 하구언에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다.

낙동강 하구언은 낙동강 하류에 건설한 독으로 이 독의 건설로 가뭄 때나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날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물을 수돗물로 이용하고 부산~김해 간의 교통도 훨씬 편리해졌다. 그러나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 날아오는 철새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각종 물고기와 수서 생물들이 위협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곳의 생태계는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어쨌거나 낙동강의 본줄기는 이렇게 길고 거침없다.

강을 따라 즐비한 볼거리

낙동강 유역에는 모두 11개의 댐이 있다. 안동·임하·합천·남강 등 4개의 다목적댐과 영천·운문·경천·가창·공산·성주·하구언 등 7개의 일반댐이 그것들이다. 댐을 간신히 빠져 나온 물은 일정한 수량을 유지한 채 낙동강으로 흐르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간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물 흐름이 끊긴

것과 주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폐수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동댐과 불과 3km 떨어진 거리에는 임하댐이 들어서 있다. 영양군 일월면 일월산에서 발원한 반변천을 고스란히 담아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다.

낙동강 줄기가 지나는 안동땅 강변 일대에는 빛나는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강을 따라 들어선 마을과 들뜬 참으로 평화로워 보인다. 수해로 적잖은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마음을 다잡고 재기를 노리고 있다. 안동호와 임하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적으로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도산서원, 퇴계 종택, 봉정사, 지례예술촌 등이 있다. 이곳들을 다 둘러보려면 1박 2일 정도는 잡아야 한다. 특히 이른 아침, 안동호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신비스럽기 그지 없다. [☞](#)

찾 아 가 는 길

- 수도권**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나들목 - 영월 - 태백.
- 영남권** :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중앙고속도로 영주 나들목 -봉화 - 태백.
- 호남권** : 88고속도로 - 금호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영주 나들목 - 봉화 - 태백.
- *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 안동 - 35번 국도 - 안동호.
- * 부산출발 - 경부고속도로 경유 - 금호 나들목에서 중앙고속도로 - 남안동 나들목 - 안동시내 - 35번 국도-와룡-안동호. 안동시내에서 시내버스 67번(1일 6회운행)을 타면 안동호를 거쳐 도산서원까지 갈 수 있다. 도산서원발 → 안동행(1일 5회). 안동역 - 법흥지하도-안동댐. 안동에서 시내버스(3번) 수시 운행, 20분 소요.